

버림받은 예수님과 교회: 신비, 친교, 선교

유흥식*

목 차

- | | |
|-----------------------------------|-----------------------|
| I. 신비: 거룩한 출산을 위한 고통 | V. 세 가지의 친교 |
| II. 파스카의 신비와 교회의 탄생 | VI. 말씀과의 친교 |
| III. 십자가의 성화상(聖畫像)과 성령강림
의 성화상 | VII.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과의 친교 |
| IV. 친교 | VIII. 형제와의 친교 |
| | IX. 선교 |

“교회를 친교의 원천이며 친교의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막 시작된 천년기에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새 천년기 43항)라고 선종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다. 교회가 하느님 백성들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모든 이에게 친교를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신비를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바로 그 순간에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새 천년기 25-27항 참조). 본 고를 통해 버림받은 예수님과 교회론에 대하여 간단히 숙고하려고 한다.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버림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교회 자신의 특성인 신비(Mysterium), 친교(Koinonia), 선교(Missio)를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대전교구 교구장

I. 신비: 거룩한 출산을 위한 고통

젊은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탄생되었다고 시작부터 인지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탄생시켰다.”(Morienti Christo, Ecclesia facta est)(Enarr. in Ps. 127,11)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한 알의 거룩한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가져왔다”(요한 12,24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특별한 몸을 심으면서 신비체를 소생시키고,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다.¹⁾

II. 파스카의 신비와 교회의 탄생

부활의 신비는, 사도행전이 증명해 보이듯이, 갓 태어난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이 모든 이에게 선포한 복음의 요약이다. 즉 십자가 위의 예수께서 살과 피를 주셨음을 재현하는 빵을 쪼개는 일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만남의 심장이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스승의 뒤를 이어 피를 흘려 순교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성 바오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서로를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무너뜨리고 당시 안에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셨다(에페 2,14 참조). 성 바오로가 이해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1) cf. Pasquale Foresi, *Teologia della socialita'*, Roma, 1965, 89.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의 탄생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며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라고 말씀하셨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는 말씀을 실현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²⁾의 근원은 가깝고 먼 사람들 사이에, 동족들 사이에, 사회의 다양한 계급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치하여(갈라 3,28: 골로 3,11 참조) “한 마음 한 영혼”을 이루면서 그들 사이에 물질적인 공유까지도 실현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을 신약 성서가 증언하고 있다(사도 4,32 참조).

III. 십자가의 성화상(聖畵像)과 성령강림의 성화상

성서의 통찰에 따라서 이루면서 교부들도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교회의 근원은 친교(koinonia)의 삶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세례와 성체 성사에서 피에 물이 흐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십자가 밑에 계신 마리아는 교회의 원형이시다. 새로운 아담인 그리스도 옆에 새로운 하와가 계신 것이다.³⁾ 성령강림 일에

2) 이런 교회의 핵심에 대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첫 번째 회칙 「Deus caritas est」(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 교회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교부들은 설명하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벨탑으로 흩어진 것을 교회가 끌어 모은다.”고 말하였다. “많은 언어가 하나가 된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것은 사랑이 한 일이다.”⁴⁾

교회 탄생의 순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봉헌과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모습이 같은 부활 사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 죽음의 개념을 신비스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요한 19,30).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령을 전해주고자 하신 것이다. 이브 콩가르(Yves Congar)는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요한 위에 입김을 불어 넣어 십자가 밑에 교회가 있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많은 교부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였다.”⁵⁾

IV. 친교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항상 실현시키고 또한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점에 이르러 발다살(Hans Urs von Balthasar)이 교회의 ‘마리아적 특성’이라고 부른 중요성을 알게 된다. 교회가 생명이고, 덕행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십자가 밑에 서 계신 성모 마리아의 순명적인 두 “대

3) cf. 아름다운 종합을 가톨릭교회 교리서 766에서 볼 수 있다.

4) Sermones, 271: PL 38-39, 1245.

5) Yves Congar, *Je crois en l'Esprit Saint*, I, Paris, 1979, 79.

답”(fiat)에서 마리아께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

V. 세 가지의 친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친교를 발견한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교,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교가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친교는 교회의 시작과 젊은 교회의 삶에서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말씀과의 친교), 친교를 이루며(=형제들과의 친교), 빵을 떼어 나누고(=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이러한 3가지의 친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주님의 날”(Dies Domini)의 만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듣고 깊게 이해한 후에 성찬례를 거행하였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형제애를 나누었다.

이 세 가지의 친교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VI. 말씀과의 친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인간적인 모든 영광을 헛되게 만들지만 하느님의 전능하심, 지혜, 성덕을 드러나게 한다(1코린 1,18-31 참조).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 바오로가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1코린 2,2).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이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세례성사의 인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로마 6,3-11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묵은 사람을 땅에 묻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 때에 똑같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말씀을 살 때에 말씀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불꽃으로 변화됨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라는 말씀을 살면서 성서의 모든 말씀을 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느끼며”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다양한 말씀들을 생활에 옮길 때에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이웃에게 전하려고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무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제 2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시작과 함께, 이런 삶의 기초 위에 교회의 친교가 이루어진다.

VII.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친교

밀알들이 빵아져 밀가루가 되어 빵을 이루고, 포도 알이 으깨져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우리도 성체를 이루기 위하여 똑같이 하여야 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사이에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성체는 우리를 성부의 품 안에, 하늘에 있도록 만들어 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요한 17,24).

성체는 무엇인가? 트렌토 공의회에서 확인하였듯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은 살과 피, 영혼과 신성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선물로 주셨다. 성부와 일치할 위하여 자신이 버림받음에까지 이르렀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성체 안에서 당신 자신과 일치시켜 주신다. 다른 이들과 분리시키는 우리들의 개별성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당신의 몸,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살 때에 성체 안의 예수님과 상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고, 기준이 되고, 역동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 번째로 형제들과의 친교에 도달하게 된다.

VIII. 형제와의 친교

성체로부터 확인된 예수님과 일치하는 성삼위의 친교를 모델로 하는 새

로운 사회성의 원천이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증언이 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4,32).

성 바오로에게 있어서 ‘교회’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갈라 3,28 참조). 가시적인 교회의 몸은 상호간의 일치를 영혼과 물질적인 친교(2코린 8-9 참조)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친교까지도 가져온다.⁶⁾

성 바오로의 시대에도 코린토의 공동체 안에 큰 분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모범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이루어,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기를 청하면서(필리 2,2 참조)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 바오로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7-8)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랑은 이웃과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

6) 바오로의 편지들을 보면 더 충만한 친교와 참여를 위하여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로마 15,5-6).

하여, 확실한 것에 대하여도 자신을 비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충만하게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교회 안의 모든 관계를 이루기 위한 ‘범’이다. 이러한 관계는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사이에, 수도회들 사이는 물론이고 지역교회의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3).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교회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의 근원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교회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버림받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자신을 무로 만드는” 사랑의 상호성을 다시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우리 사이에, 교회 안에 부활하신 분을 현존하도록 만들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예수님과 성삼위와 천국을 미리 체험하도록 만들어 준다. 성령강림 날에 부활한 성령으로부터 막 태어난 예루살렘의 초대 공동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였다”(사도 2,37).

IX. 선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친교로서의 교회와 함께 선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은 “온 인류를 위

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인류의 빛 9항)이 되며,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기쁨과 희망 1항)고 알려준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으며’(필립 2:6-7),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2코린 8:9). 이렇게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인류의 빛 8항).

이런 언급은 공의회에서 강조한 친교의 교회론이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간 것임을 볼 수 있다. 일치의 영성은 친교의 교회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알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며 영혼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오로의 생각은 명확하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데 결코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갈라 3:13).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들 사이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온 인류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가 모든 인간과의 연대성을 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1코린 9:22).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

정입니다.”(로마 9,3) 라고 토로하였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백성은 ‘벽을 넘어서’(extra muros) 모든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히브 13, 12-13 참조).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어둠, 고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고통과 하느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은총의 힘으로 모든 비어있음과 죄를 넘어서, 온 인류와 일치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무죄한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이 흘리신 당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주셨고, 또 그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서로 화해시켜 주셨으며 악마와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 내시어, 우리가 누구나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갈라 2,20)”(기쁨과 희망 22항).

교회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은 곳들 곧, 학교, 병원, 자선 활동 등에서 또한 인간들이 더불어 사는 환경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교회는 정배인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더 어려운 환경에서 만나면서 성삼위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상과의 대화를 위한 열쇠는 바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확인하고 있다(인류의 빛 13-16항 참조).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은 모든 인간과 문화 안에 심어져있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꽃피울 수 있도록 불림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정배로 모셔야 함에 예외일 수 없고, 교회로부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게 될 때 버림받은 예수님과 일치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으로 자신을 향상 줄 수 있는 부유함을 내적으로는 물론이

고 외적으로도 지니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버림받고 죽으시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간이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은 ‘하느님 눈의 눈동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하느님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의 신비인 교회를 살게 되고, 성삼위의 친교를 닮은 사랑을 교회 안의 하느님 백성들이 살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현존하시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친교의 교회를 증거할 때에 최고의 선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에 관한 식별*

- 교의신학적 원리들 -

박준양**

목 차

I. 서론	3.5. 교회론적 원리
II. 성령의 보편적 활동에 대한 식별 과제	3.5.1. 친교(communio)와 일치(unity)의 원리로서의 성령
III. 식별을 위한 교의신학적 원리들	3.5.2. 은사(charisma)의 목적과 본질-공동체성과 봉사성
3.1. 연속성(continuitas)의 원리	3.5.3. 은사의 특성-다양성과 외적 지향성
3.2. 교회 교도권(Magisterium Ecclesiae)의 판단	3.5.4. 사도들의 권위에 의한 판단
3.3. 하느님 나라(Regnum Dei)	3.5.5. 가장 큰 선물인 사랑(ἀγάπη)
3.3.1. 하느님 나라의 성장	3.6. 인간학적 원리
3.3.2 '말씀의 씨앗'(semina Verbi)	3.6.1. 불연속성(discontinuitas)의 원리
3.4. 그리스도론적 원리	3.6.2. 역설(paradoxa)의 원리
3.4.1. 그리스도론적 교백	IV. 결론
3.4.2 참여적 중재(mediatio participata)	

I. 서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그 본질이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접촉점'(point of entry)이자 통로이기도 하다.¹⁾ 따라서 인간은 성부의 영이시며 또한 성자 그리스도의 영

* 이 글은 200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 가톨릭대학교 교의신학 교수